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3차 회의

12월 13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3차 회의가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 등빌딩 14층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강대석·김남기·조미옥·장우철·이묘숙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탄핵정국 속 지역현안 보도 노력 돋보였다”

▲강대석

지난 10월 ‘최순실 사태’ 이후 관련 기사가 빠짐없이 1면 톱기사로 다뤄지고 있다. 장기간 단일 사건의 기사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보도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인 것 같다. 이 사태를 집중 보도하고 사실과 칼럼 등을 통해 중요하게 다룬 것은 민심을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제작이라고 평가한다.

급박한 탄핵정국에서도 광주일보는 지역의 현안을 빼놓지 않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안처리 D-3’ 기사와 12월 5일 ‘광주·전남 국비확보 내역’ 등 현안을 심층보도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또 12월 6일 ‘광주지역 역사교사들이 분석한 문제 투성이 국정교과서’ 기사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정역사교과서의 오류·왜곡·부실 등 문제점을 세세하게 분석 보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에 충분했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1면 톱기사 제목은 편집의도와 제작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12월 9일 1면 ‘박근혜 탄핵-대한민국 운명의 날’ 제목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박근혜=대한민국’이라는 생각과 박근혜 개인 탄핵이 마치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를 좌우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개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일 뿐이고 대한민국 운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1면 머릿기사의 제목을 정할 때 더 깊은 고민을 담았으면 한다.

▲김남기

최근 한 언론사가 독자위원을 초청해 주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광주일보도 내년에는 시범적이거나 주제를 정해 놓고 지역 이슈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최근 광주일보가 영남일보와 ‘2016 달빛소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내실있는 행사는 자주 개최해야 한다. 영·호남 지역감정이라는 게 중장년층에 존재할지 몰라도 청년들에게 없는 것 같다. 양 지역간 지속적 교류방안을 고민하는 등 지역감정을 타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2월 13일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사고가 나왔다. 뜻깊은 행사를 부각하고 그 의미를 담아내는 ‘타이틀’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단순 연례행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회가 가진 의미를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역사상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한국계 미국인 다이빙 선수 세미리가 96세로 별세했다. ‘코리아드림’을 이룬 사람, 올림픽에서는 저조했지만 쇼트코스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박태환 선수 등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계속 조명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했으면 한다.

▲장우철

나라가 들쭉고 있다. 광주시도 각종 비위에 연루된 인사들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소란스럽다. 광주일보가 지역 각종 비리를 취재 보도해왔지만, 최순실 게이트도 언론의 힘으로 알려졌듯 광주시 비리 문제를 심도 있게 취재해 지역민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지난 9월 28일 ‘한아름 품어야 할 비보호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이 쓴 기고문을 봤다. 그 내용처럼 이탈주민의 자녀가 북에서 태어나면 탈북자, 타국에서 태어나면 비보호청소년 등으로 분류돼 교육·의료 문제에서도 차등 지원을 받는다. 현재 법률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다문화, 무국적 자녀문제 등을 깊이 있게 다뤄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 상생발전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불협화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월 22일 ‘군공항 이전 현안 말도 못 꺼냈다’ 등 광주·전남 상생의 발목을 잡는 현안에 대해 전문가·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기사화해주길 바란다.

최근 전일빌딩에서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발견된데 이어 건물 안전진단 문제 등이 다시 회자된다. 전일빌딩 안전진단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아직 ‘안전불감증’이 팽배하게 남아 있는 것 같다. 시민안전과 관련 있는 전일빌딩 문제를 깊게 다루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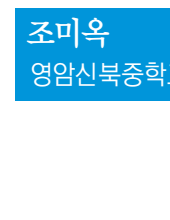
광주일보는 매년 연말이면 기부·나눔소식을 전해 후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도 외롭고 쓸쓸하게 연말을 보내는 이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13일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 위원장 주재로 지면평가 회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조미옥
영암신북중학교 수석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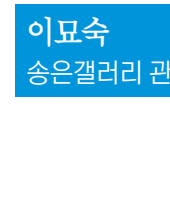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사회가

‘국정교과서’ 체계적 분석...독자 이해 도와 제작 의도 선명하게 알리는 편집 고민해야

중이신문 기사는 살아있는 교과서 어린 독자 위해 어휘풀이 해주길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사회가



이묘숙
송은갈러리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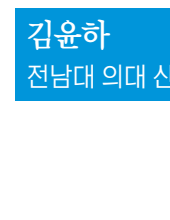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달빛 소나기’ 개최 등 영·호남 행사 눈길 지역 이슈 논의할 토론의 장 마련 어떨까

‘김영란법’ 안착 현장 지속 보도 좋았다 독자가 사고 싶은 중기제품 소개해야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지역 비리 심도있는 취재...알권리 충족을 광주·전남 상생 현안 지역 목소리 담아야

‘광화문 촛불’ 취재·제작 차별화 눈길 잇단 수상 축하...내년에도 기세 이어가길

▲조미옥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획을 그을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면 톱기사를 빼놓지 않고 스크랩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뉴스도 있지만 종이신문의 기사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신문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이들이 요즘 광장히 알고 싶어하는 게 많아졌다. 교육현장의 목적은 올바른 시민양성이다. 미래 독자인 학생들이 신문에서 거론되는 피의자, 피고인, 탄핵 등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궁금해 한다. 어휘풀이 등을 통

해 어린 독자들을 배려했으면 한다.

11월 14일 ‘광화문 촛불민심 들어 보라’ 기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지면에 집약해놓아 좋았다. 이 기사를 놓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주제로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뉴스를 제대로 봐야겠다’, ‘신문을 자세히 봐야겠다’ 등 사소한 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었다. 언론의 힘이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순실 사건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광주일보는 11월 24일 ‘광주 중학교 1학년 역사 안 가르친다’ 등 국정교과서 문제를 빼놓지 않았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오는 2018년부터 시

행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꼼수를 부려 역사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부문에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민심의 목소리를 집약, 지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11월 26일 1면에 ‘가을의 정취’ 사진기사가 나왔다. 매일 최순실 사태가 1면 기사로 올라가면서 지면이 딱딱해진 감이 없지 않았지만, 광주일보가 멋진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의 감성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돋보였다.

▲이묘숙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 혼선을 빚었던 게 ‘김영란법’이다. 9월 12일과 18일 김영란법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나열식이 아니라 흐름을 추적해가는 기사를 썼다. 달라진 식사공격 등 김영란법이 가져온 사회 변화상도 조명했다. 이후 10월 6일 ‘더치페이 어때요’ 기사 등 김영란법이 점차 안착돼 가고 있는 모습까지 끊임없이 보도한 것이 좋았다.

11월 21일자 농수산 지면에 게재된 알뜰김장은 주부에게 도움 되는 기사였다. 젊은 주부들이 감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직거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시의적절했다.

광주일보가 지면을 활해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자와 연관 있는 상품을 소개하면 좋겠다. 신문을 보고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소개되면 독자, 생산자들에게 도움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을 맞아 상·중·하 연재기사를 게재했다. 문화전당의 지역작가 참여 한계 등 문제점을 짚고 마지막 부분에서 전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전당 조직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전당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전당의 문제는 예산과 조직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문제도 크다. 여전히 미흡한 관람객 편의시설은 물론, 전당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을 세련되게 지적하면 좋겠다. 문화전당에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 등 관람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사도 필요하다.

▲김윤하

올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르스에 이어 남미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통해 한국에 유입될까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대처를 잘해 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

3월에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과 대결에서 완승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생활에 어떤 영향 미칠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기계를 다루는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최순실 게이트’ 내막을 밝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11월 이후 수백만개 촛불이 모여 거대한 혁신의 햇불로 피어올라 마침내 새 날을 기대하게 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촛불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된 데는 광주일보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11월14일 ‘광화문 100만 촛불...국민의 명령 되진하라’는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를 직접 취재진을 구성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발빠른 제작이었다. 무엇보다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취재단을 파견하고 6개 면을 활해, 민심을 전달한 점이 돋보였다.

11월17일에는 광주에서 1980년 5·18 이후 36년 만에 첫 민주성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가장 빨리 전했고 지역 민심을 전국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기사는 주요 중앙지들이 바로 다음날 소식을 받아 전함으로써 뉴스의 중요도가 입증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촛불민심 취재에서는 광주일보 특유의 팀워크와 순발력이 돋보였다. 이같이 차별화된 제작이 현 시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광주일보가 양질의 신문을 제작했다는 것을 입증했던 한 해였다. ‘광주, 시간 속을 걷다’ 시리즈가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대상을 받았고, ‘전파관리스 불범감청 의혹’ 기사는 광주전남 민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광주는 일을 부르고 싶다’ 편집은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편집상을 휩쓸기도 했다. 광주일보의 이같은 기세가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정리=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